잇단 자살…무너지는 10대들

중학생 반성문 쓰다…전교 2등 여고생 "학교생활 괴로워…"

경찰, 여고생 '왕따'·학교 폭력 수사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반성문을 쓰던 중학생과 학교생활을 괴로워하던 여고생이 잇따라 자살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D아파트에 사는 광주 모 중학교 3년 P(14)군이 이 아파트 경비실 옥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L(11)양이 발견,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P군은 전날 어머니(52)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훔친 사실이 탄로나면서 아버지(49)에게 꾸지람을 듣고 반성문 100장을 쓰던 중이었다. P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들이 '바람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아 나가보니 경비실 옥상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P군이 평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가족 등의 말에 따라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충동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오전 8시20분께에는 화순군 화순읍에 사는 K(17)양이 자신의 집 뒤뜰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천성 구개열(口蓋裂)로 13차례 수술을 받은 K양은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성격도 밝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숨진 K양이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는 유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자살 동기와 집단 괴롭힘 사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K양의 어머니는 "딸이 '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며 "최근엔 친구들에게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밝혔다.

어머니는 특히 "딸이 죽기 몇 시간 전 언니에게 '2만 원이 필요하다.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며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과 폭력, 연유를 알 수 없는 급전 때문에 딸이 죽음을 선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양의 담임교사는 "K양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조만간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K양의 발인식은 15일 화순모 병원에서 가족들의 오열 속에 진행됐으며, 이어 생전에 다니던 화순모 고교 교정에서 노제를 치렀다. 교정엔 같은 반 학생 30여 명이 함께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열하는 어머니 K양의 어머니가 15일 자신의 딸이 생전에 다니던 교정에서 노제를 치른 뒤 딸의 책상에 앉아 유품을 매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화물연대 파업 철회

대한통운과 교섭 타결…계약해지 38명 복귀

故 박종태씨 20일 영결식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교섭이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 운송거부 닷새째인 15일 새벽 전격 타결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새벽 5시40분께 대한통운과 계약 해지자 복직 문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지부별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참여 조합원 76.5%의 지지로 총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계약 해지자 38명이 지난 3월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귀하고, 복귀 후에는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 해지자들의 업무복귀 시기는 고(故) 박종태 씨의 장례식 후 1주일 이내로 정해졌으며,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가처분 소송을 합의 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기사들의 복직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종태 지회장의 시신을 광주로 옮겨와 20일께 영결식을 치를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조중동 광고 중단·신영철 대법관 사퇴 시위

광주지법 직원 중징계 받을 듯

법원노조 "서명운동"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소위 '조·중·동'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과 신영철 대법관 사퇴시위 등을 벌인 광주지법 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은 15일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에 참여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를 위반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직원 김모(42)씨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이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활동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자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을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법률 조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고법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을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1심 판결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은 권력의 시녀이자 자동판매기였던 굴욕의 역사를 썼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달 8일에는 대법원 청사 앞에서 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대법원장에게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김씨가 업무방해 외에도 근무지를 이탈해 신 대법관 관련 시위를 벌인 점, 1심 판결 후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이유로 광주고법에 중징계 의견을 냈다.

한편 법원노조는 김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막기 위해 징계위원 면담과 직원 서명운동 등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우울증 30대 아파트서 투신

지난 14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H아파트에 사는 백모(31)씨가 이 아파트 15층에서 투신 자살했다. 경찰은 숨진 백씨가 최근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백씨가 자신의 신병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손가락 금반지 안빠져 119 출동

쌍나팔

○…20대 남성의 손가락에 낀 반지가 빠지지 않는 바람에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15일 광주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광주시 남구 방림동 김모(24)씨의 집에서 김씨가 "반지가 손가락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구조대로 구조요청을 해왔다는 것.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은 붉게 부어오른 김씨의 왼손가락에 끼어있던 금반지를 절단기를 이용해 1분여 만에 제거.

○…김씨는 "반지를 빼내기 위해 비눗물도 이용해보고, 병원에도 가볼까 생각하다가 119에 신고했다"며 "사소한 신고에도 신속하게 출동해줘 고마울 따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아이를 '탕''탕'…

초등생 공기총 살해범, 운전면허 때문에 범행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범인은 면허취득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해 피해 어린이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애원 조차 외면한 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9시께 이모(48)씨가 B군을 납치한 뒤 담양군 고서면 저수지로 가던 중 J(10)군이 두려움에 떨며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서 11㎞ 가량 떨어진 고서면 저수지로 가는 길이 한적한 산길인 탓에 J군이 직감적으로 위기를 알아차리고 애원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J군의 간청을 묵살한 채 비정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수지에 도착한 이씨는 곧바로 차량 안에서 공기총을 꺼내 J군에게 6발을 쏴 살해하고 다시 20㎞나 떨어진 담양군 남면 한 계곡 절벽에 B군의 시신을 유기했다.

앞서 이씨는 사고 직후인 4일 오후 8시40분께 북구 일곡동 한 종합병원으로 J군을 데려갔다가 'MRI(자기공명영상촬영)를 하려면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들었을 즈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면허취소 상태인 이씨가 이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증 재취득이 어려워진 데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 합의 등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05년 면허가 취소됐으며, 2007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 2년간 면허시험 응시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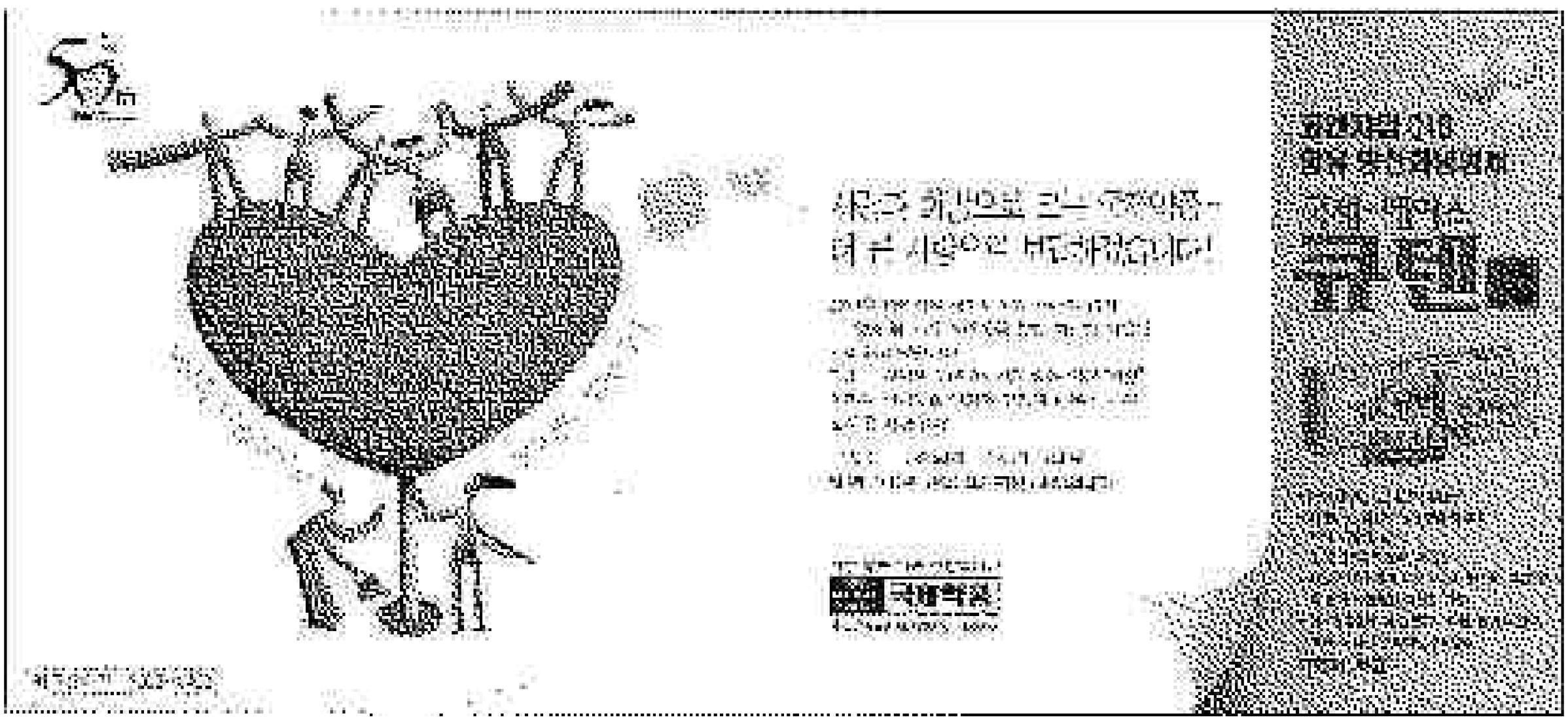
이씨는 경찰에서 "(J군이) 담양으로 가던 중 '살려달라'고 말했다"며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고 진술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위조 진단서 판매 중국인 유학생 2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5일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짜 진료확인서를 만들어 판 중국인 Y씨(23)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동거녀 A(여·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짜 진료확인서를 만든 뒤 6만원에 파는 등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개 병원의 인장과 의사 인장을 만들어 진단서를 위조했으며, 중국인 전용 인터넷사이트에 '가짜 진단서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